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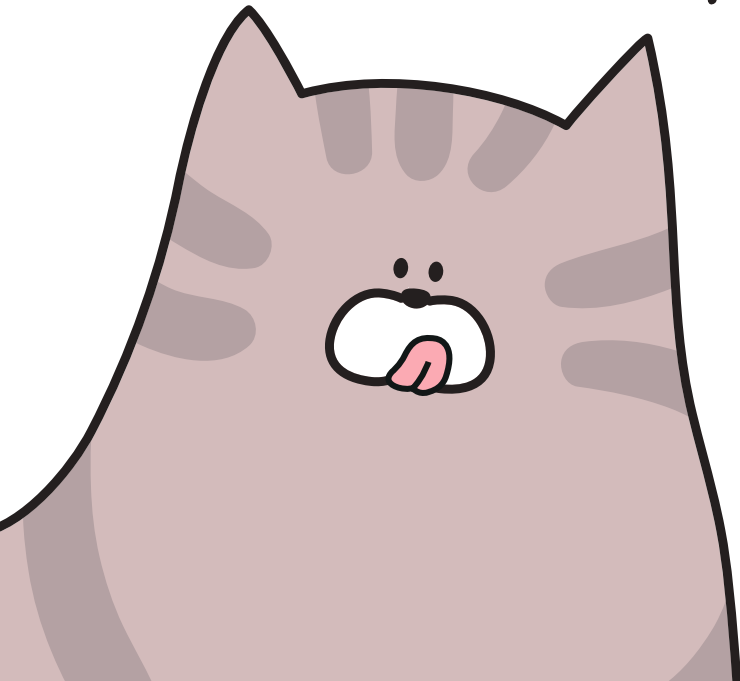


달콤한  
휴식편



# 중문에서 뭐하지?

What are the best things to do in  
Jungmun?



안녕!  
내 이름은  
중문이야~  
반가워~



# CONTENTS

## 커피에 진심인 향긋한 커피 맛집

마노커피하우스	6
코츠커피	10
레드브라운	12
쉴티브리즈	14
카페1950	16

## 눈과 입이 즐거운 브런치

워르	20
베메로	24
동백정원	26
마녀의언덕	28
플로트제주	30

## 달콤한 유혹, 디저트 천국

이정의덕	34
올디벗구디	38
볼스	40
카페오놀	42
오프도넛	44
미베이커리카페	46
광평빵집	48
소브리당로222	50
프랑제리	52
서울영무새 제주점	54

## 이국적인 분위기에서 즐기는 휴식

고스란	58
카페을리	62
테	64
러디스	66
소담	68
카노푸스	70
스르륵	72
사우스쇼어	74
바다바라 카페&베이커리	76
더클리프	78

### 중문이가 소개하는 중문에서 뭐하지?

What are the best things to  
do in Jungmun?

제주 토박이 ICC JEJU 중문이가

달콤한 휴식의 세계로 초대한다냥~

『중문에서 뭐하지?』는 ICC JEJU에서 자동차로 15분이면  
갈 수 있는 매력적인 카페 30곳을 소개하는 카페책자다냥.

아름다운 요선뷰 카페부터 디저트와 베이커리,  
커피에 진심인 로스터리 카페까지 모두 담았다냥.

직접 찾아다니며 선정했으니

우리 함께 맛있는 카페 여행을 떠나보자냥!





# 커피에 진심인 향긋한 커피 맛집

7

마노커피하우스

코스커피

레드브라운

솔리브리즈

카페1950





# 마노커피하우스



## 최고의 커피 한 잔을 위한 정성

#세계3대커피 #스페셜티커피 #장인정신 #녹차라떼

최고의 커피를 위해 품질 좋은 원두만 골라 추출하는 '마노커피하우스'는 세계 3대 커피를 다루는 스페셜티 전문점이다. 'Coffee is a fruit(커피는 과일이다)'라고 카페 벽면에 쓰여 있는 문구처럼 이곳의 커피를 한입 머금으면 신선한 과일의 산미가 입안 가득 남는다. 이곳에서는 신의 커피라 불리는 희귀 커피 '파나마 에스메랄다 게이샤 Panama Esmeralda Geisha'를 핸드드립으로 만나볼 수 있다. 커피의 맛은 생두의 품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원재료 불변의 원칙을 믿는 사장님의 전문적인 설명을 곁들이면 커피 본연의 맛과 향이 더욱 극대화된다. 핸드드립 커피뿐만 아니라 제주 유기농 녹차로 만든 '그린라떼'와 '말차쿠키'도 녹차 본연의 진한 맛으로 인기가 많다.

### 마노커피하우스의 마노는 무슨 의미인가요?

'Mano'는 스페인어로 '손의', '수제의'란 뜻이고, 저의 이름인 '이만오'의 '만오'라는 이름과도 잘 어울려 상호로 쓰게 되었어요.

### 커피에 대한 관심의 시작이 궁금해요.

몸이 좋지 않아 강원도에서 요양하고 있을 때, 당연히 제가 중증 환자이기에 커피를 마실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연히 앞집 신부님이 평상에 앉아 내린 커피를 환자인 저에게 자신 있게 권하는 거예요. 마시고 난 후에도 몸의 탈이 없어서 담당 의사에게 문의했어요.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건 대부분 커피를 태우기 때문이에요. 태우지 않은 신선한 커피를 마시는 건 괜찮습니다."라는 의사의 말이 저에게 커피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지요. 커피에 대해 더 공부해서 환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몸에 좋은 커피를 만들고 싶었어요.

이만오 대표

### 커피는 여러 가지 맛을 지니고 있잖아요. 커피 고유의 어떤 맛을 손님에게 가장 느끼게 해주고 싶은가요?







커피는 과일이지 않아요. 가장 과일다운 커피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꿀을 고소하게 해주세요.”라고 어느 사람도 말하지 않죠. 상업적인 목적으로 커피의 고유 맛을 훼손시킨 대기업 커피 프랜차이즈 때문에, 사람들이 일상에서 몸에 좋지 않은 커피를 즐겨 마시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사실 커피에는 5가지 맛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커피의 쓴맛은 최소화하면서 커피 고유의 과일 향과 달콤한 맛을 가진 가장 커피다운 커피의 맛이 담긴 커피 한잔, 이 커피가 주는 건강과 행복을 많은 사람이 느꼈으면 합니다.

**거의 온 국민이 커피를 즐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 커피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나요?**

커피의 가공법에 따라 내추럴 커피(natural coffee)와 워시드 커피(washed coffee)를 시작으로 전 세계 수천 가지 커피가 다 나뉘질 수 있어요. 내추럴 커피는 커피체리를 수확한 후 과육을 제거하지 않고 체리를 그대로 건조하여 약간 과일 향이 나는 달달한 맛을

내고 워시드 커피는 원두를 세척하고 건조하는 가공 방식으로 깔끔하고 마일드한 맛을 내요. 커피는 과일 이니까 새콤달콤한 산미가 당연히 살아있어야 해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너무 많죠. (웃음) 파나마 에스메랄다 게이샤 커피를 마시고 17살 소녀 같은 느낌의 커피라는 표현을 한 연세가 70이 넘는 손님이 계셨어요. 1년간 체류하면서 한국에서 처음 커피다운 커피를 마신다고 좋아하셨던 스웨덴 왕실에서 오신 손님도 기억에 남아요.

**파나마 에스메랄다 게이샤 커피가 신의 커피라고 하지만 사실 가격에 놀랐어요.**

게이샤 원두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커피 원두의 특별한 맛 덕분입니다. 특유의 강렬한 꽃향과 과일향이 어우러져 신의 커피라고 불리죠. 큰 키에 큰 열매를 맺는 게이샤 나무는 생산성이 매우 낮습니다. 게이샤 생두는 수확량이 많지 않아서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좋은 원두를 구하기도 힘들어요. 제가 이 커피를 맛 보려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는데 100% 진짜 파는 곳들이 거의 없었던 것처럼 이 커피를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웠어요. 신의 커피라 불리는 이 커피를 한국에서 맛보게 하고 싶었어요.

**마노가 핸드드립 전문 카페로 유명하지만 저처럼 대중적으로 라떼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라떼는 보통 라떼 아트에 집중하잖아요. 사실은 우유보다도 그 안에 들어있는 커피가 어떤 원두로 어떤 향미를 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라떼에서 과일 향이 나서 너무 좋았다고 해주시는 손님도 계셨어요.

**업계 종사자로서 제주 카페 문화가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나요?**

카페의 본질은 커피를 파는 곳이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의 새로운 트렌드 때문인지 부수적인 것에 집중

하고 정작 커피다운 커피를 파는 곳은 없어요. 유일하게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좋은 풍경도 디저트도 아닌, 커피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커피를 음식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기호에 따라 때론 밥보다 많이 마시는 커피문화가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좋은 중독의 행복이 되길 바랍니다. 커피라는 본질에 충실한 카페 문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노커피하우스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마노커피하우스의 비전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진짜 커피의 맛을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54-17
- 0507-1312-8866
- 09:00~20:30
- 반려동물 동반 가능  
베이비제어 구비
- 







-  서귀포시 월드컵로 51, 1층
-  0507-1370-1918
-  10:00~18:00  
화요일 정기휴무
-  키즈케어존  
반려동물 동반 가능
- 

# 코츠커피



## 유럽의 낭만이 가득한 플랫폼아트 맛집

#유럽감성 #햇살맛집 #야외테라스 #플랫폼아트

유럽풍 외관이 눈에 띄는 카페 '코츠커피'는 영국 런던 근교에 위치한 코츠월드(Cotsworld)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상큼한 오렌지 컬러의 창틀과 큐브 모양의 바닥 타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곳에 가면, 직접 구운 케이크가 단아하게 카운터에 장식되어 있고 한쪽 벽면에는 와인과 식자재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풍요롭다. 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야외테라스에서 따스한 햇볕을 맞으며 즐기는 커피 한잔은 유럽 골목 작은 카페에 온 듯한 감성에 빠져들게 한다. 고소한 에스프레소와 달콤한 우유가 조화로운 '시그니처 코츠'는 진하고 풍성한 맛을 깊게 담고 있다. 햇살의 온기와 같은 분위기를 지닌 카페이다.







# 레드 브라운

## 제주 바다 풍경을 감상하며 커피 한 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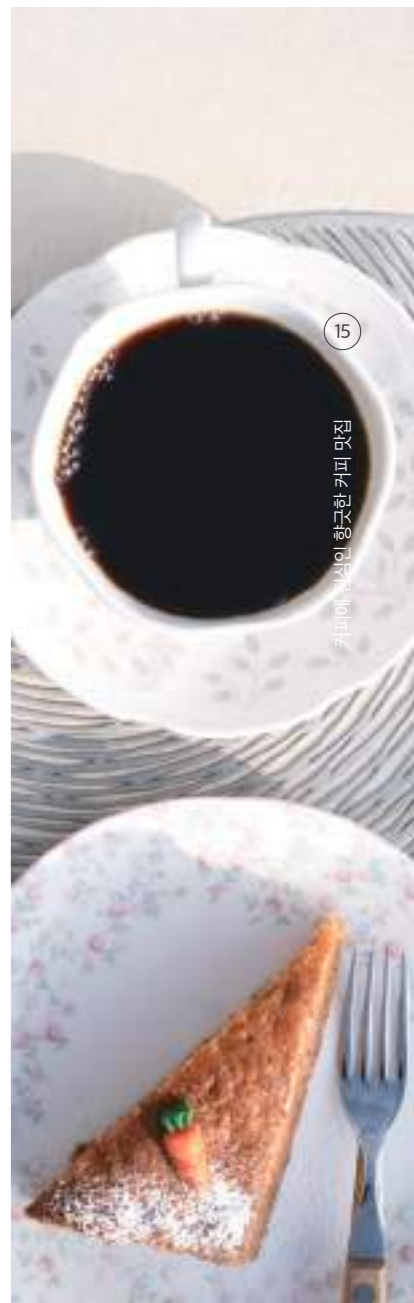
#핸드드립커피 #프랑스홍차 #박수기정 #작가의바다



자메이카 블루마운틴의 붉은색에 영감을 받아 이름 지어진 '레드브라운'은 10여 개국에서 원두를 들여와 직접 로스팅 후, 커피를 내어주는 핸드드립 커피 전문점이다. 향긋한 과일향의 '케냐 AA 마사이'부터 고소하고 부드러운 바다감의 '브라질 옐로우 버번'까지 다양한 커피의 풍미를 제주 비경과 함께 즐길 수 있다. 카페 창문 너머 바다에는 형제섬이 떠 있고 옆에는 대평포구와 박수기정이 거대한 병풍처럼 서 있다. 매일의 날씨와 분위기, 원두의 신선도에 따라 바리스타가 추천과 함께 정성스레 내어주는 '오늘의 추천 커피'는 늘 믿을 만한 맛을 유지한다. 캐러멜의 향기가 달콤한 프랑스 홍차 '웨딩 임페리얼'과 우아한 향의 '마르코 폴로'도 은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마치 바다를 독점해서 서재에 들여놓은 듯한 프라이빗 작업공간 '작가의 바다'는 필기구까지 섬세하게 갖춰놓고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 서귀포시 안덕면 난드로 49-50, 2층
- 0507-1378-8889
- 11:00~20:00  
수요일 정기휴무
- 반려동물 동반 가능
- P







16

# 솔티브리즈



## 바람따라 파도 타고 온 서퍼들의 휴식처

#서퍼카페 #모로코감성 #레드벨벳크로플 #솔티베리라떼

국내 최고의 서핑 파라다이스 제주, 당신이 서핑을 좋아한다면 '솔티브리즈'로 와야 한다. 서퍼이자 바리스타로 활동하는 주인장이 자연에서 소멸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 감각적으로 꾸민 카페이다. 나무 밀동 의자 위, 달빛 같은 조명 아래, 벽 한편에 파도처럼 끊임없이 일렁이며 재생되는 서핑 영상을 보고 있으면 마치 파도를 타고 있는 듯 자유로운 마음이 살랑거린다. 시그니처 메뉴는 진한 에스프레소와 고소한 우유가 조화로운 '멜로우 브리즈'와 수제 딸기 청 위에 우유와 치즈폼이 폭신하게 얹혀 있는 '솔티베리라떼'이며 레드벨벳 파우더가 보석처럼 뿌려진 '레드벨벳 크로플'도 영롱한 비주얼로 인기가 좋다.

- 서귀포시 예래로 88
- 0507-1308-0662
- 월, 수, 목, 일 10:30~19:00  
금, 토 10:30~21:00  
화요일 정기휴무
- 반려동물 동반 가능



17





18

# 카페 1950

제주를 담은 음료가 인상적인 카페

#청기와카페 #대형카페 #제주시그니처음료 #스콘맛집

제주를 모티브로 재해석한 메뉴를 즐길 수 있는 '카페1950'은 한라산과 중문 바다가 보이는 청기와 건물에 있어 멀리서 보아도 눈에 띈다. 한라산 높이인 1,950m를 뜻하는 카페 이름과 '현무암, 어승생, 미강밭, 새별노을' 등 제주의 대표적인 자연 요소를 달콤한 맛으로 재현한 독특한 시그니처 메뉴가 호기심을 자극한다. 기본 케이크 종류 사이 눈에 띄는 '꿀말렌카'는 체코 전통 케이크로 이곳의 시그니처 디저트이다. 카페에 들어가면 음료 제조 과정을 볼 수 있는 오픈형 주방이 시원하게 중심을 잡고 있고, 경계선 없이 다양한 디자인의 테이블이 여유롭게 배치되어 있다. 카페 벽면 곳곳에 사진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눈을 즐겁게 해주지만, 이곳의 가장 큰 볼거리는 통창 너머 보이는 한라산이다. 100평의 실내와 100평의 주차장이 마련된 넓은 공간으로 단체방문도 거뜬하게 수용할 수 있기에 문화 이벤트를 진행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19



카페에 진심인 향긋한 커피 맛집



-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90, 1층
-  0507-1360-0591
-  평일 10:00~21:00  
주말 10:00~20:00
-  반려동물 동반 가능  
베이비체어 구비  
단체 이용 가능
-  P





# 눈과 입이 즐거워 브런치

뽕르

베메로

동백정원

매녀의언덕

플로트제주





# 뮈르

## 제주에서 만나는 프랑스 감성 브런치

#프랑스 #프로방스 #브런치카페 #프렌치토스트

중문 주변 고즈넉한 동네 어귀, 프랑스 프로방스 시골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는 카페가 있다. 프랑스어의 형용사 '뮈르(mûr)'는 과일이 익은 혹은 곡식이 여문이라는 뜻이다. 뮈르의 하얀 문을 열고 들어서면 영화 속 세트 같은 주방이 화사하게 손님을 맞이한다. 담백한 색조의 우드 테이블, 햇살이 사르르 배어있는 밝은 베이지 색감의 벽면에 기대어 창가를 내다보면 제주 농가 풍경과 저 멀리 바다가 정답게 다가온다. 시그니처 음료 '오후의 사과'는 아몬드와 시나몬 홍차 베이스 사과티로 와인잔에 담겨 나온다. 뮈르의 프렌치토스트는 금방 구워 촉촉한 토스트 위에 제철 과일과 손수 만든 생크림이 포근하게 얹어져 고소하고 풍성한 맛으로 사랑받는다.

### 먼저 제주에서 카페를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상미**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매주 서울 근교 카페 투어를 할 정도로 카페를 좋아했어요. 제주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지인의 제안으로 평상시 꿈꾸던 카페를 제주에서 실현하게 되었어요.

### 상권에서 벗어난 조용한 동네를 카페 장소를 선택한 이유는요?

**이상미** 거창한 이유는 없어요. 원래 이곳은 가정집 폐가였어요. 벽도 다 무너져있었는데, 딱 들어선 순간 보이는 바다와 숲이 제 눈을 사로잡아서 바로 계약했어요.

### 제주의 많은 카페 중에 뮈르만의 특별함은 무엇 일까요?

**이상미** 주방요. 오픈 주방을 꼭 하고 싶었어요. 저희의



이지연, 이상미 대표





고객 대부분은 여성분들이에요. 여성들이 꿈꾸는 주방의 로망 실현이 이 워르의 주방이 아닐까 합니다.

**카페에 담고 싶은 특별한 인테리어 컨셉이 있었나요?**

**이상미** 프랑스 시골 할머니의 집에서 느낄 수 있는 아늑함을 주고 싶었어요. 이국적인 프랑스 빈티지 컨셉을 위해 벽에 걸린 유화 그림부터 유럽 원목 트레이까지 소품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추구하는 감성을 담고 싶었습니다.

**브런치 카페로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워르에서는 어떤 음식을 브런치로 즐길 수 있을까요?**

**이상미** 세 가지의 프렌치토스트와 크루아상 오픈 샌드위치가 메인이에요. 한국인이 선호하는 입맛에 맞춘 재료로 계절에 맞게 조율해서 메뉴를 개발하려고 노력해요.

**워르가 가진 브런치 메뉴의 고유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지연** 이빠요. (웃음) 일단 눈으로 즐거움을 주지요. 프렌치토스트에 얹어지는 직접 만든 생크림은 제가 먹어도 특별하고 맛있어요. 토스트에 들어가는 과일과 조화를 생각해서 우유 생크림에 최소한의 설탕을 사용하여 맛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해요. 보통 저희는 주문이 들어온 후 음식을 준비하기까지 15분 정도가 소

요돼요. 예를 들면 프렌치토스트를 구울 때 달걀물 입혀서 그냥 굽는 게 아니라 저희는 거기에 캐러멜 라이징이라고 또 한 번 더 코팅을 입히는 작업을 추가로 해서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려요. 저희는 하나씩 하나씩 굽는 정성의 맛을 중요시해요.

**차를 베이스로 하는 음료에 특별히 와인잔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상미** 와인을 좋아해서 저녁에는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와인 컨셉 카페를 꿈꿨어요. 그래서 와인잔에 와인 색깔과 비슷한 티의 투명하고 예쁜 고유색을 담아내고

싶었어요. 냉침으로 우려낸 티와 과일청의 이상적인 맛의 조합을 위해 엄청난 테스트를 걸쳐 지금은 프랑스 브랜드의 플렌윈드, 볼레로, 캐모마일 2~3가지 티를 찾아 쓰고 있어요.

**늘 변함없는 맛을 선보이고 계시지만, 워르가 앞으로 꿈꾸는 변화나 계획이 있을까요?**

**이지연** 큰 변화보다는 빵에 한정된 브런치 메뉴를 다른 음식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초당 옥수수나 감자 같은 주변 제주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해 수프류와 샐러드류로 메뉴를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서귀포시 하예로 28  
064-900-3685  
11:00~19:00  
월요일 정기휴무  
노키즈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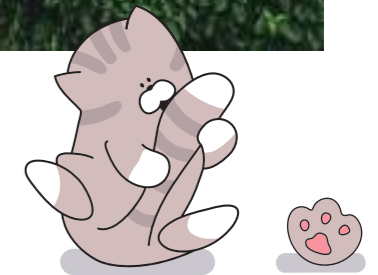





# 베메로

건강한 제주 자연의 맛, 베이글 맛집

#천연발효 #베이글 #유기농 #브런치

중문 단지 내 입소문 난 브런치 카페 '베메로'는 'bake, make and roast' 뜻을 축약 해놓은 이름처럼, 매일 빵을 굽고, 샌드위치를 만들고, 유기농 커피 원두를 로스팅 한다. 높은 통창 너머로 키 큰 야자수가 보이고 하얀 테이블마다 놓여있는 연두색 의자가 나뭇잎처럼 싱그럽다.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쫄득한 천연발효종 베이글 이며 버터와 설탕, 달걀과 우유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 밀가루와 제주 꿀을 이용해 만들었다. 이 베이글로 만든 '아보카도 에그 베이글 샌드위치'의 색색의 채소들은 두툽한 단면만 보아도 한입에 다 씹을 수 없는 풍부한 볼륨감을 전해온다. 제주 땅 에서 생산된 신선한 제철 유기농 농산물로 만든 베메로의 브런치 대표 메뉴는 '베 메로플레이트'이다. 베이글과 함께 포슬포슬한 스크램블에그, 베이컨, 새송이 버섯, 신선한 채소가 맛과 색의 조화를 이루며 건강하게 담겨있다.



-  중문관광로72번길 29-9 신우성 타운 내 라동
-  064-738-7832
-  매일 08:00~20:30  
Brunch 08:00~15:30
-  반려동물 동반 가능  
베이비체어 구비
- 





# 동백정원

제주를 담은 한적한 브런치 맛집

#브런치맛집 #빈티지인테리어 #동백꽃 #리트리버



제주의 계절 속도에 맞춰 탐스럽게 꽃피는 동백 가로수길을 지나면 아늑하고 목가적인 '동백정원'이 있다. 할아버지 감귤밭 위에 만들어진 삼대가 함께 운영하는 카페이다. 아버지가 정성 들여 정원을 가꾸고, 어머니가 요리하며 딸이 손님을 맞이한다. 빈티지한 벽지와 커튼, 테이블과 가구가 놓인 실내는 유럽 산장에 온 아늑한 느낌을 자아낸다. 상냥한 미소를 지닌 주인장의 친절함은 이곳을 더욱더 정겹게 만든다. 다양한 브런치 메뉴를 선보이고 있는 동백정원은 도톰한 '프렌치토스트'와 통통한 새우가 들어간 '콤샐러드'로 사랑받는다. 창가에 앉아 맛있는 브런치를 즐기며 감귤농장과 초록 정원을 바라보면 삶의 즐거움이 실현되는 순간을 느끼게 된다. 여름 햇살을 듬뿍 머금은 청귤로 만든 '청귤 샐러드 파스타'와 '청귤 에이드'의 상큼한 달콤함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서귀포시 이어도로343번길 117
- 0507-1326-6042
- 11:00~18:00  
수요일 정기휴무
- 노펫존  
베이비체어 구비  
단체석 없음
- 







# 마녀의 언덕

## 망망대해를 곁에 둔 마녀의 넉넉한 식탁

#영화마녀촬영지 #오션뷰 #브런치 #고양이

올레 8코스 언덕 위, 루프탑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망망대해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카페가 있다. 영화 '마녀'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답게 카페 이름 또한 '마녀의 언덕'이다. 시원하게 높은 층고 위로 길쭉 뻗은 통창 오른쪽에는 광활한 바다가, 왼쪽에는 동네 전경과 한라산이 시원하게 담겨온다. 수제청 기반의 시그니처 메뉴 '티에이드'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브런치 세트 메뉴인 A와 B 그리고 빅점보는 각자 대중의 선호도가 높은 음식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있다. 그중 부드러운 치즈 오믈렛, 베이컨, 새우 바질페스토가 알차게 구성된 '브런치 B'가 손님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카페 테라스에서 햇볕을 쬐며 꾸벅꾸벅 졸고 있는 고양이의 치명적인 귀여움은 때론 바다뷰를 이길 정도로 손님의 시선을 뺏는다.



- 서귀포시 예래해안로 205, 1층
- 010-5003-8816
- 매일 09:00~18:00
- 반려동물 동반 가능  
베이비체어 구비
- P










# 플로트 제주

## 감각적인 플레이팅의 신선한 브런치

#올데이브런치 #플레이팅 #와인 #파르나스호텔

집은 녹음을 머금은 탁 트인 통창과 안락한 의자 그리고 예술적 감각의 플레이팅까지 섬세하게 조절된 올데이 브런치 카페 '플로트 제주'는 파르나스 호텔 1층에 자리하고 있다. 스웨덴어로 '우아함'을 뜻하는 'flott'를 그대로 이름으로 가진 플로트의 너른 실내는 마치 호텔 로비처럼 정갈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긴다. 제주 화산송이 색깔을 닮은 타일 테이블 위에 놓인 생기있는 꽃장식에 기분 좋은 눈길을 보내게 된다. 브레이크타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즐기는 올데이 브런치와 스페셜티 커피, 풍미 가득한 와인과 스몰디쉬까지 만나볼 수 있다. 메뉴는 크게 브런치, 메인 메뉴, 오믈렛, 수프, 샐러드, 디저트 등으로 나뉘어 플로트만의 우아한 맛을 선보이고 있다. 다양한 맛의 '플레이트 브런치', 블루베리 콩포트가 올라간 도톰한 '블루베리 팬케이크', '돌문어 블랙 파스타', 기다란 바게트 샌드위치와 감자튀김과 당근이 나오는 '흑돼지잠봉샌드위치'는 이곳의 인기 있는 메뉴이다. 다채로운 음료 중 '제주 당근&오렌지주스'는 제주 자연의 신선하고 건강한 맛으로 손님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  서귀포시 중문관광로72번길 100, 1층
-  064-803-0320
-  매일 08:00~19:00
-  노펫존  
키즈프렌들리 카페  
베이비체어 구비
- 



분과: 인이 즐거운 브런치





# 달콤한 유혹, 디저트 천국

이정의덕

올디벗구디

볼스

카페오늘

오포도넛

미베이커리카페

광평빵집

소보리당로222

프랑제리

서울앵무새 제주점



# 이정의댁

강은정 대표

## 오래된 시집이 카페가 된다면

#디저트상점 #무스케이크 #고즈넌 #고양이

조용한 예래마을, 오랜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는 듯 커다란 팽나무가 서 있는 곳에 카페 '이정의댁'이 자리하고 있다. 적당히 굽이진 동네 길을 벗어나 주차하고 친구 집을 찾아오듯 동네를 구경하며 걷는 재미도 쏠쏠하다. '이정의댁'의 '이정의'는 주인장을 키워주신 외할머님 성함이다. 이름이 아닌 역할로 불렸던 여인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싶었던 손녀의 마음이 담겼다. 시집을 좋아하는 주인장이 꾸며놓은 실내는 주인장의

돌사진부터 삼촌들의 오래된 책과 이모의 화장대 등 가족의 서사가 다정히 담겨있다. 주인장이 직접 만든 디저트가 정갈하게 장식된 진열장은 마치 보석함 같다. 시그니처 메뉴는 흑임자 무스를 넣어 고소한 맛의 '이정의케이크'이며, 영롱한 색감과 서정적 이름을 지닌 아기자기한 무스케이크들이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한다. 물방울 모양의 붉은 열매를 닮은 케이크 '산수유'를 쪼개면 아름다운 결을 드러내며 딸기와 키위의 상큼함과 달콤함을 환하게 선사한다. 디저트와 곁들이는 커피와 차는 디저트와의 균형과 조화로운 맛을 위해 기교 없이 경쾌한 맛을 지니고 있다.



서귀포시 예래로144번길 22-1  
0507-1413-8086  
매일 11:00~19:00  
반려동물 동반 가능

## 이곳 '이정의댁'은 어떤 마음과 가치를 담아 만든 공간인가요?

늘 제가 가게를 한다면 무조건 할머니 이름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3살 때부터 외할머니댁에서 자랐거든요. 큰삼촌 이름으로 훈이엄마 아니면 교장 선생님이었던 할아버지 이름으로 누구 댁이라고, 평생을 누군가의 이름으로 불렸던 할머니에게 이름을 찾아주고 싶었어요.

우선, 할머니 이름을 딴 '이정의댁' 카페가 할머니처럼 사람들에게 다정한 이웃이길 바랐어요. 관광객들보다도 도민들이 동네 구멍가게처럼 커피와 디저트를

사 먹지 않아도 편하게 들려 얘기할 수 있는 편한 공간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을 카페라는 표현보다는 '디저트 상점'이라고 정했어요.

## 대문 입구에서 있는 입간판에 부제처럼 쓰여 있는 '때와 흐름에 관하여'라는 문구는 어디서 온 것인가요?

언젠가 본 수학에 관한 책에서 나온 구절이에요. 제가 지향하는 것은 저 구절처럼 항상 계절마다 이벤트와 디저트에 계속 변화를 주고 싶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음료하고 디저트만 단순하게 제공해주는 카페가 아닌,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공연도, 독서 토론회도 제가 좋아하는 공간에서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카페 내부의 가족들의 오래된 물건들이 많이 보여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살던 집의 분위기와 색감이 거의 비슷한 이곳에 웬만하면 집에 있던 소품으로 채우려고 노력했어요. 삼촌이 썼던 의자와 이모가 썼던 화장대... 삼촌과 이모가 독립하면서 아무도 안 쓰고 가만히 놓여있는 가구들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각자 서정적인 이름을 가진 디저트의 영감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요?**

저는 시집과 책을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시와 영화에서 그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려고 노력해요. 무엇보다도 부여된 의미에 계절과 맛이 조화롭게 조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디저트 메뉴가 있나요?**

이 동네 뒤로 있는 큰 오름인 군산을 모티브로 한 사각형 모양의 '군산'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캐러멜과 피칸 베이스의 디저트인데 맛있어요.

**가장 인상적인 손님이 있을까요?**

많은 손님이 있죠. 한 달 전에 전화로 케이크를 주문 예약하신 부부가 있었어요. 생신이신 어머니까지 모시고 오셔서 이곳에서 생신 초를 부신 후에 옆 테이블의 손님에게까지 케이크를 나눠주셨어요. 근데, 받은 손님 중에 어떤 분이 다시 케이크를 사서 그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때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이 카페에 특별히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할머니요. 저희 가게가 증문점에 있을 때도 바로 집이 코앞인데도, 젊은 친구들한테 민폐 된다고 오질 않으셨어요. 이곳은 할머니가 본적도 없으세요.

**이곳에서 가장 아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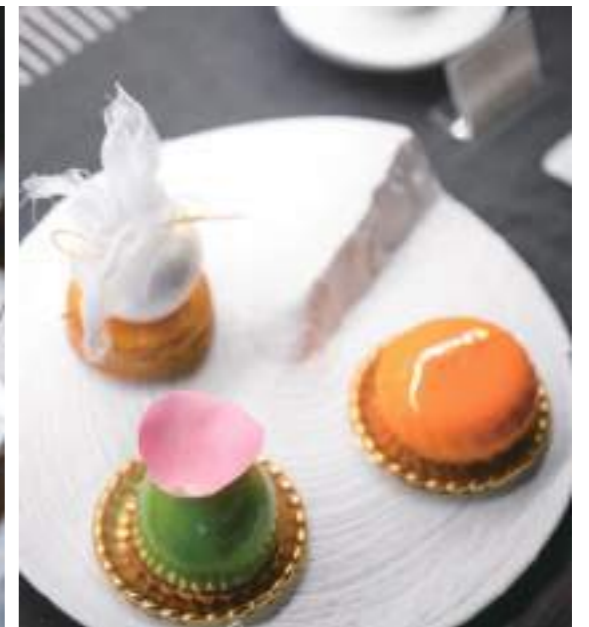
카페 입구에 있는 팽나무요. 이곳을 선택한 이유도 저 나무 때문이에요. 제가 일하는 이곳에서 가만히 팽나무를 보는 것을 좋아해요. 고목들이 사는 이 동네가 주는 매력을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디저트 상점 이정익택이 시집이면 기존의 어떤 시집과 가장 닮았을까요?**

시집보다는 박경리 소설의 '표류도'를 말하고 싶어요. 그 소설의 주인공도 카페 여사장이거든요. 약간 제 삶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는 떠다니는 섬, 표류도가 가장 어울려요.

**이곳을 한마디로 어떤 카페로 정의하고 싶으신가요?**

내가 좋아하는 카페.





# 올디벳구디

## 디저트와 커피의 완벽한 조합

#크로플맛집 #쿠키맛집 #애견동반 #주택개조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좋은 것을 뜻하는 '올디벳구디'(Oldie but goodie)는 이름 처럼 고전적인 가치를 담아낸다. 오래된 이층 가정집 외관을 그대로 갖고 있으며 은은한 조명을 비추는 내부에는 목직함 검정 철제 테이블이 섬처럼 드문드문 놓여져 있어 절제된 단순함의 미학을 선사한다. 오래된 외부 계단으로 연결된 2층에는 지극히 사적인 시간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사실 이곳은 이미 맛있는 쿠키와 커피로 정평이 나 있다. 이쁜 조약돌처럼 장식된 쿠키 중 '흑절미쿠키'는 쫄깃한 떡의 식감이 살아있어 많은 이의 사랑을 받고 있다. 브라운치즈가 듬뿍 얹혀있는 크로플과 피스타치오 크림의 '피오커피'도 고소한 달콤함을 선사한다. 커피와 쿠키의 변치 않는 클래식 조합은 늘 최상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



서귀포시 일주서로 330

010-9082-1914

매일 11:00~21:00

반려동물 동반 가능  
노키즈존







# 볼스

흔들리는 들꽃 속에서  
빵의 고소한 향이 느껴지는

#굴창고개조 #플랜테리어 #베이커리카페  
#소금빵맛집

한라산 전경이 드넓게 펼쳐진 들녘에  
멋스러운 카페로 변신한 굴창고 건물이  
우뚝 서 있다. 풍경과 맛이 조화롭게  
조절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vol-  
ume'의 축약형 '볼스카페'(Vols)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카페는 전문 파티  
시에가 매일 신선한 빵을 굽는 베이  
커리 카페이다. 철제문을 열고 들어  
가면, 투명 쇼케이스에 들어있는 각양  
각색의 빵이 눈길을 끌고 후각을 자극  
한다. 이곳은 뉴질랜드산 버터로 만든  
고소한 '시오빵'과 뽕처럼 꽃혀 있는



에스프레소 캡슐을 꼭 눌러서 크림치즈  
안에 짜서 먹는 달콤한 '티라미수 크  
로아상'이 인기 있다. 이곳에 앉아 빵과  
커피를 즐기며 바람에 하늘거리는 들  
꽃이 담긴 창틀을 바라보고 있으면 자  
연이 가장 좋은 그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하늘색 색감이 매력적인  
시그니처 음료 '볼스라떼'와 귀여운 병에  
담겨 그 달의 이름을 갖게 되는 제주의  
제철 생과일 음료는 매번 기대감을 준다.



- 서귀포시 일주서로 6268
- 070-7779-1981
- 매일 10:00~20:00  
재료소진 조기마감
- 반려동물 동반 가능
- P







# 카페오늘

## 유기농 우유로 만든 달콤한 디저트

#동물복지 #유기농우유 #아이스크림 #제철과일

대포포구 앞, 제주 동물복지 유기농 우유로 건강한 디저트를 만드는 카페가 있다. 이 카페에 들어가려면 귀여운 우유갑 모양의 색다른 입구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 제주에서 자라는 제철 과일과 신선한 우유로 만들어진 이곳의 로컬 디저트는 건강한 가치를 우선으로 담아내고 있다. 한라산 초지에서 자연 방목된 젖소로부터 당일 착유한 유기농 우유 아이스크림과 제철 과일로 만든 빙수는 무한 신뢰를 가져다준다. 우유뿐만 아니라 이곳은 로컬의 신선한 제철 재료로 만든 디저트로 유명하다. 무농약 꿀겉질을 이용한 바삭하고 상큼한 디저트 '진피정과'를 만나볼 수 있다.



- 서귀포시 대포로 174, 2층
- 0507-1353-4564
- 매일 11:00~18:00
- 키즈케어존  
반려동물 동반 가능
- P





# 오토도넛

폭신한 도넛을 파는 포근한 가게

#빵지순례 #도넛맛집 #시그니처도넛 #선물포장

커피를 테이크아웃하면 몽게구름처럼 폭신한 서비스 도넛을 얹어 주는 도넛 전문 카페, '오토도넛'. 오토라는 귀여운 이름은 오토(auto) 즉 가게 대표의 아버지가 직접 만든 기계에서 당일 생산된 도넛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매일 직접 생산하는 신선한 도넛을 맛볼 수 있다. 마늘 크림을 품은 '대정마농글레이즈'와 다원에서 유기농 녹차를 공급받아 만든 '서귀말차숲도넛' 등 제주 자연의 맛을 도넛에 재현하고 있다. 산미와 바디감이 적절한 커피는 도넛과의 환상적인 조합을 자랑하며 오토도넛의 모든 용기는 지구 환경을 위해 생분해 재료를 사용한다.



- 서귀포시 중문상로 87, 1층
- 0507-1325-7014
- 매일 08:00~18:00
- 반려동물 동반 가능
- 







# 미베이커리카페

다양한 빵이 있는 아름다운 미식 공간

#빵지순례 #유기농 #천연발효종 #착한가격

빵이 좋아 제과제빵을 배운 주인장 임순미 씨는 직접 빵을 가르쳐주었던 사부를 모시고 제주에 와서 본인의 이름의 끝 자인 미(美)를 따서 '미베이커리' 카페를 차렸다. 블랙 컨테이너 건물을 들어서면 중앙 진열대에 품미 가득한 빵과 케이크들이 푸짐하게 채워져 있다. 직접 키운 발효종과 유기농 밀 등의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정성스레 매일 아침 향기 있는 빵을 구워낸다. 손안에 묵직하게 잡히는 샌드위치와 소금빵 등 종류도 다양하다. 저온 숙성으로 만들어진 치아바타, 누룽지와 오곡이 들어있는 건강한 '할배누룽지빵'과 호박으로 만든 '제주퍼핀감파뉴'가 인기가 많다. 제주 제철 따라 착즙으로 만든 주스도 추천한다. 통창 테라스 너머, 홀로 서 있는 큰 나무 밑에 낡은 배 한 척이 그림처럼 인상적이다. 뒤쪽으로는 산책로가 있어 든든하게 빵을 즐긴 후에 바다를 보며 잠시 걷기에도 좋은 곳이다.



- 서귀포시 이어도로 780
- 0507-1382-6812
- 08:30~19:00  
수요일 정기휴무
- 노펫존  
베이비체어 구비
- 







# 광평빵집

## 조용한 마을 정겨운 부부의 건강한 빵집

#천연발효종 #저온숙성 #생식빵 #프레첼

한라산 아래 첫 마을, 광평리 외곽에는 가정집 마당 안에 사랑방 같은 빵집이 있다. 빵을 사랑하는 부부가 매일 빵을 먹고 싶어 집 마당에 차린 소박한 빵집이지만 그 맛과 품질은 동네방네 소문이 자자하다. 물을 사용하지 않고 생크림을 넣어 천연발효로 만든 생식빵인 '훗카이도 식빵'은 언제나 인기가 많기에 맛보려면 일찍 서둘러야 한다. 주로 식사빵 위주의 빵을 만들어 판매하지만, 토요일에는 특별한 빵을 만나 볼 수 있다. 그중 유기농 밀가루와 천연발효종, 프랑스 고메버터와 국산 양

버터로 속을 꽉 채운 '암버터 프레첼'이 인기가 많다. 빵집 내부에는 3개의 테이블이 있으며, 빵과 커피를 주문하면 부부의 지난 삶 속에서 취향과 기분에 맞게 아끼며 썼던 생활 접시와 커피잔에 고스란히 담겨서 나온다.



- 안덕면 광평로 34-68
- 010-9414-4157
- 11:00~18:00  
일, 월, 화요일 정기휴무
- 반려동물 동반 가능
- P







# 소보리당로222

## 제주 감성 가득한 디저트 카페

#감귤밭 #티라미수맛집 #소보리라떼 #감성카페



- 서귀포시 소보리당로 222
- 0507-1308-7896
- 12:00~18:00  
화요일 정기휴무
- 노펫존  
노키즈존  
단체석 없음
- P

‘소보리당로222’는 카페가 위치한 곳의 주소이기도 하다. 한적한 마을 어귀에 자리하고 있어 조용한 오후를 보내기 좋다. 크림색과 우드톤 색조의 외관과 실내가 편안한 느낌을 주며, 넓지 않은 실내이지만 너른 창과 높은 천고는 개방감을 더한다. 액자 같은 유리창 너머에는 초록 나무와 돌담이 제주 감성을 더해주며 특히 겨울철에는 황금빛 감귤이 익어가는 감귤밭을 꽃처럼 감상할 수 있다. 시그니처 커피는 진한 라떼에 부드러운 수제크림을 올린 ‘플랫슈페너’와 아이스크림이 들어간 ‘소보리라떼’이다. 특히 수제 디저트 ‘팔 인절미 티라미수’는 콩고물과 중간중간 인절미가 들어있어 쫄쫄한 맛을 자랑한다.





# 프랑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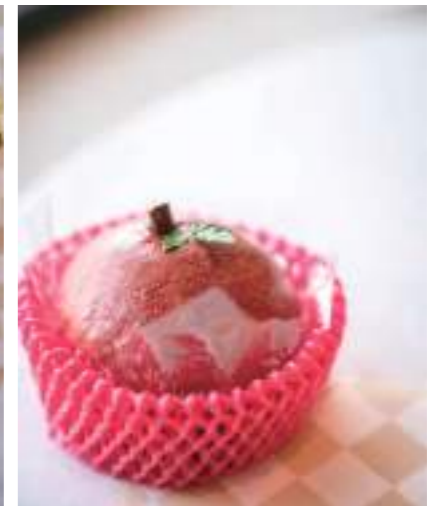
## 과일을 굽는 베이커리 카페

#사과빵 #한라봉빵 #켄싱턴리조트 #빵선물세트

프랑스인들의 건강한 식문화를 모토로 하는 '프랑제리'에는 과일박스가 넣어 있다. 크림치즈와 사과잼이 가득한 사과 모양의 빵이 시그니처 메뉴이며, 세트 구매하면 사과 상자에 그물망 포장까지 진짜 사과 박스같아서 선물용으로 좋다. 과일빵 시리즈가 출시될 때마다 '이것은 정녕 과일인가, 빵인가?'라는 감탄을 자아낸다. 시그니처 음료인 '하르방 큐브 돌체 라떼'를 주문하면 돌하르방 모양의 커피 얼음이 함께 나온다. 프랑제리는 호텔 안 베이커리가 비싸다는 통념을 깰 정도로 어느 일반 카페보다도 가성비가 좋으며 도민은 10% 할인까지 적용된다.



-  서귀포시 중문관광로72번길 29-29
-  0507-1391-9107
-  매일 09:00~23:00
-  노펫존
- 







# 서울앵무새 제주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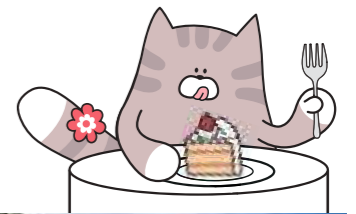


## 아이와 가기 좋은 알록달록 대형 카페

#디저트맛집 #퀸아망 #키즈친화 #알록달록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유명 카페 '서울앵무새'가 제주 휴양단지 야크마을에 날아왔다. 아이들이 마음껏 색칠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 이곳은 알록달록한 색감을 가진 디저트와 음료가 있는 대형카페이다. 바삭한 식감을 가진 대표메뉴 '퀸아망'(Kouign-Amann)을 다양한 맛으로 만나볼 수 있다. 앵무새의 알처럼 생긴 '앵무새알마들렌'과 알록달록 무지개 빛깔의 '앵무새슬러시'는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다. 부드러운 브리오슈 먹물에 달콤 씹싸름한 녹차 크림이 한라산 형상으로 올라가 있는 '제주한라산롤'은 제주점만의 특별한 메뉴이니 놓치지 않길 바란다.

- 서귀포시 색달중앙로 162
- 0507-1333-1940
- 매일 09:00~20:00
- 키즈프렌들리 카페  
베이비체어 구비  
반려동물 동반 가능
- 







# 이국적인 분위기에서 즐기는 휴식

고스란

카페올리

테

레디스

소담

카노푸스

스르륵

사우스쇼어

바다바라 카페&베이커리

더클리프



# 고스란



서귀포시 안덕면 병암로 81-40 1, 2층  
 0507-1372-2949  
 10:00-18:00  
 키즈 프렌들리 카페  
 반려동물 동반 가능  
 베이비체어 구비

## 카페 안 갤러리, 카페 밖 풍경화

#갤러리카페 #아인슈페너 #산책 #고양이

고즈넉한 숲 오솔길을 따라 걸으면 너른 초록 정원 위, 한적한 카페가 큰 나무처럼 서 있다. 카페에는 벨기에 화가 쿤 반 덴 브룩 (Koen van den Broek), 김일화, 김보희 등 저명한 국내외 화가의 원화가 실내 벽면을 아낌없이 차지하고 있어 마치 작은 갤러리에 와 있는

듯, 차분한 여유를 누리게 된다. 통창을 가득 메우고 있는 짙푸른 녹음은 김보희 화가의 살아있는 풍경화를 보는 듯하다. 비 오는 날에는 이 분위기의 색감이 얼마나 더 짙어질까! 젊은 부부가 구운 꾸덕한 바스크 치즈케이크와 진한 라떼 위 부드러운 크림이 올라간 '고스란슈페너' 그리고 영롱한 색감의 '유자애플티'는 또 하나의 명작이다. 열다섯 마리 고양이가 공생하는 싱그러운 초록 숲 정원(7272.76m<sup>2</sup>)이 있는 이곳에서의 운치 있는 산책도 잊지 않길 바란다.



## 제주에서 카페를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조승연** 2019년 8월, 서울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제주에서 장인어른이 운영하게 된 떡집을 맡아 함께 운영하게 되었어요. 수익성이 높지 않은 탓에 떡집을 정리하게 되었고, 사업을 구상하던 중 저희 부부가 좋아하는 커피와 디저트 쪽을 연구하여 이곳에서 카페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편안히 시간을 보내곤 하세요.

**한지희** 처음에는 카페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 카페 경영을 체계 있게 배우기 위해 처음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했어요.

한지희, 조승연 대표

## 커피를 마시는 단편적 공간을 넘어 '고스란'이라는 카페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일단 저희 카페 커피가 맛이 있고요. (웃음) 손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곳곳에 보이는 미술 작품을 돌아보며 "여기는 갤러리인가요?"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그림에 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세요. 그림이 손님과 자연스러운 대화의 매개체가 되어주죠. 가끔 저명한 예술가분들도 단골처럼 오셔서







**여자 화장실에 김일화 작가의 '깊은숲시리즈'가 전시되어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 유명한 갤러리의 화장실도 이럴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원화들은 어떻게 소장하시게 되었나요?**

**조승연** 평상시 장인어른께서 미술과 예술에 관심과 애정이 많아 소장하고 계셨던 작품들입니다. 제주를 좋아하는 벨기에 작가 쿤 반 덴 브룩을 위해 이곳 정원에 화가의 작업실과 별장을 지었을 정도로 장인어른의 예술에 대한 사랑은 각별하세요.

**한지희** 그 별장 앞마당에서는 김유정 배우가 토레타 이온음료 광고를 찍었어요. 이곳에 전시되는 그림은 100% 아버지의 취향에 따르는 영역입니다. (웃음)

**메뉴 개발의 영감은 어디서 얻고,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한지희** 먼저 제가 좋아하는 것에 손님의 입장으로 취향을 더해서 메뉴 개발을 해요.

**조승연** 쉬는 날과 여행을 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카페를 많이 둘러보고 자극받으려고 해요. 특별히 영감을 주는 메뉴는 직접 레시피도 찾아보고, 다시 우리식으로 해석해서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도해 봐요.

**개인적으로 카페 대표님들은 본인의 카페에서 어떤 메뉴를 가장 좋아하고 즐기는지 궁금합니다.**

**한지희** 무조건 아메리카노입니다. (웃음)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라떼류를 마시게 되면 계속 손님들이 오시면 라떼가 식어서 맛이 많이 떨어져요. 디저트는 간편히 먹을 수 있는 쿠키입니다.



**기억에 남는 손님이 특별히 있을까요?**

**조승연** 남아공에서 중문 쪽으로 이사오셨던 부부가 기억에 남아요. 아내가 유학경험이 있기에 외국 손님이 오면 자연스럽게 영어로 소통해요. 하지만, 이 부부 손님들은 올 때마다 저희에게 궁금한 한국어 표현도 물어보며 한국말을 한마디라도 연습하고 배우려고 노력하세요. 스몰토크에서 시작된 대화가 쌓이다 보니 친밀감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고스란을 애용하는 주요 고객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한지희** 관광객보다는 도민들이 주 고객이에요. 제주 영어교육도시와 강정 신시가지에 손님들이 자주 오세요.

**어떤 손님이 와서 어떤 시간을 이 카페에서 갖길 바라시나요?**

**조승연:** 저희는 특별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 카페의 이름처럼 조용히 오셔서 고스란히

평화로운 휴식의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관광객분들도 우연히 방문한 후에 '제주의 그 카페는 참조용하고 좋았다'라는 기억을 갖길 바랍니다.

**동종업계 종사지만 느낄 수 있는 제주 카페 트렌드가 있다면요?**

**한지희:** 전에는 대형카페가 유행이었다면 작은집을 개조해 각자의 존재감으로 반짝이는 카페가 많은 것 같아요.

**조승연:** 트렌드라고 하기엔 너무 다양하고 우후죽순처럼 생겼다가 또 그냥 사그라드는 안타까운 부분도 많아요.

**세집 걸러 한 집이 카페인 환경에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카페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조승연:** 트렌드는 말 그대로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 같아요. 자기만의 핵심적인 고유함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카페엘리

## 한라산과 오름을 초대한 가족 카페

#통창카페 #한라산뷰 #크로플맛집 #피아노 #벽난로






카페의 옛 지명을 그대로 살린 '카페엘리'는 아버지가 손수 건물 짓고 가구와 소품을 만들어 채운 제주 토박이 카페이다. 높은 층고 벽면을 가득 채운 집 모양의 통창 프레임 안에는 한라산, 오름, 돌담 등 제주 자연의 모습과 햇살이 어우러지며 카페 안을 비추고 있다. 손님들에게 늘 사랑받는 이곳의 시그니처는 브라운치즈가 듬뿍 올라간 '브라운치즈 크로플'이다. 여유롭게 배치된 테이블과 함께 그랜드 피아노가 우아하게 자리하고 있어 누구든 즉석 공연을 할 수 있고, 겨울에는 벽난로 불을 켜며 따뜻한 난방에 묻혀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곳이다. 눈 오는 날 꼭 이곳을 기억하자.



-  서귀포시 안덕면 병약로 90
-  0507-1375-1708
-  11:00~18:00  
임시휴무는 미리 공지합니다.
-  반려동물 동반 가능  
베이비체어 구비
- 





-  서귀포시 천제연로 311 어두모루 정류장 맞은편 1층
-  010-2918-4250
-  11:00~20:00  
월요일 휴무
-  반려동물 동반 가능
- 



# 테

## 빈 잔 같은 공간에 채워진 차의 감각

#블렌딩티 #차분한분위기 #포토존 #돌창고

버스도 사람도 드문 버스정류장 맞은편, 오래된 감굴 돌창고를 개조한 카페가 호젓하게 서 있다. 동양적이고 정적인 차 문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즐길 수 있는 '테'. 원재료인 찻잎이 정직하게 우드 받침대에 담겨있고, 8종류에 달하는 차의 색채가 팔각형 투명 유리잔에서 크리스털처럼 반짝이고 있어, 각자 취향의 향기와 빛깔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히비스커스와 캐모마일, 페퍼민트가 잘 블렌딩 된 'T1 블렌딩' 티가 이곳의 가장 인기 있는 메뉴이다. 루비톤을 띠는 색감에 녹아있는 차의 다각적인 풍미가 은은하게 다가온다. 빈잔을 감상하는 것 또한 다도의 예법이듯이, 외딴섬처럼 시멘트 벽면에 장식이라곤 붙어있는 사진뿐인 이곳에서 여유를 즐기길 바란다. 뒤뜰 잔디 위 야외테이블로 가는 입구에는 애니메이션 영화 「스즈메의 문단속」의 문을 닮은 문만이 우두커니 서 있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 러디스

## 바다가 앞마당인 붉은 벽돌 카페

#오션뷰 #대형카페 #애견동반 #사장님라떼

범섬이 보이는 올레길 7코스에 붉은 노을을 닮은 벽돌 카페 '러디스'가 있다. 높은 천장에 우아하게 늘어뜨린 샹들리에 조명 아래 천연 버터와 좋은 밀가루로 구운 '돌담앙버터'와 '바질토마토식빵' 등 다양한 빵들이 인사를 해온다. 이로부터 특이한 시그니처 음료 '사장님라떼'는 고소한 크림라떼 위에 금가루가 영롱하게 보석처럼 뿌려져 소박한 사치를 맛볼 수 있다. 카페 한편에는 생효모로 직접 만든 시원한 수제 맥주를 즐길 수 있는 모던 스타일의 바가 마련되어 있으며 커다란 아치형 창문에는 바깥 풍경이 한눈에 담겨온다. 계절마다 꽃이 피는 오션뷰 정원에서는 음료를 즐기기에, 산책하기에도 좋다.



- 서귀포시 월드컵로 202
- 0507-1445-4530
- 09:30~21:30
- 반려동물 동반 가능  
대관과 행복한 이벤트 가능
-





70

71





# 제주소담카페

## 범섬과 동석에서 바다 풍경 한 잔

#오션뷰 #범섬 #플라워 #한라봉주스

플로리스트 겸 카페 주인장의 소중하고 다정한 마음처럼 이곳은 꽃향기와 커피 향이 가득하다. 너른 창에는 서귀포의 푸른 바다가 시원하게 출렁이고 테라스의 모든 의자는 바다와 마주 앉아있어 범섬과 자연스럽게 동석하게 된다. 오션뷰의 사치를 담아내지 않은 친절할 커피 가격이 이유인지, 관광객보다는 제주도민이 단골로 편하게 문턱을 오고 가는 곳이다. 특히 남편이 농사로 수확한 한라봉을 통째로 갈아 넣은 '한라봉주스'와 동양의 향기라 불리는 고품유자를 특별히 공수해 만든 '유자몽차'는 이곳의 대표 메뉴답게 새콤달콤하고 진한 과즙의 맛을 담고 있다. 제주의 자연을 눈으로, 맛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곳이다.



-  서귀포시 막숙포로 150
-  0507-1376-2831
-  09:00~22:00
-  반려동물 동반 가능  
베이비 체어 구비  
장애인 편의시설
- 





# 카노푸스



-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98
- 010-2339-1319
- 10:00~22:00
- 노펫존 베이비체어 구비
- 



## 정겨운 초가지붕 안, 유택한 시간

#전통가옥 #오션뷰 #아일랜드빙수 #시크릿가든 촬영지

전통 초가마을 모습의 씨에스호텔 앤리조트 안에는 서귀포 푸른 바다를 마주한 고즈넉한 '카페 카노푸스'가 있다. 자연의 멋을 더한 서까래 아래 라탄 상들리에가 나직하게 내려와 있고, 통창 너머에는 초록 나무 사이로 탁 트인 파란 바다가 펼쳐진다. 바다만큼이나 넓은 잔디밭을 바라보는 야외테이블에서는 상쾌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노곤한 휴식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 올레길 8코스와 연결된 산책로도 매력적이다. 이곳의 원두는 'A.하루방'과 'B.할망'이라는 정겨운 제주어로 나뉘어 있다. 'A.하루방'은 은은한 산미와 부드러운 바디감의 시그니처 원두이고, 'B.할망'은 고소한 견과류와 특유의 리치 아로마로 긴 여운의 단맛을 지닌 원두이다. 여름철이라면 제주의 자연을 재해석한 '제주아일랜드빙수'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제주도민을 위한 10% 할인도 있으니 꼭 챙기길 바란다.





# 스르륵

## 돌고래가 보이는 도로 끝 로스터리

#도로끝 #오션뷰 #돌고래 #로스터리

한적한 강정마을 해안도로 끝에 다다르면 바다를 홀로 내다보고 있는 '제주 카페스르륵'을 만나게 된다. 세계 각국의 스페셜 생두를 직접 로스팅한 로스터리 커피 전문점이며, 두 종류의 블렌딩 원두와 콜롬비아 디카페인 싱글 원두 중 취향에 따라 아메리카노를 즐길 수 있다. 시그니처 음료인 '핑크슈페너'는 부드러운 아인슈페너에 핑크솔트를 더해서 단짠한 맛과 함께 고소함을 즐길 수 있는 메뉴이다. 위층으로 올라가는 붉은 벽돌계단 벽면에는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가 걸려 있어 인상적이다. 2층 통창에는 어느 시선에도 바다가 파도처럼 밀려온다. 바다 풍경에 사로잡혀 한참을 보고 서 있으면 유리창에 보일 듯 말듯 시처럼 쓰여있는 감성적인 글귀가 이내 마음에 들어온다. 돌고래가 출몰한 날짜를 정갈하게 기록한 유리창은 다시 이곳에서 돌고래와 조우할 수 있다는 희망을 담고 있다.



- 서귀포시 말질로 428
- 11:00~21:00  
월요일 정기휴무
- 노키즈존  
반려견 동반 가능
- P





# 사우스쇼어



## 휴양지 풍경의 디저트 맛집

#오션뷰 #한라산뷰 #초당옥수수라떼 #크로플

시선의 막힘없이 바다, 야자수, 한라산 등 제주의 모든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통창을 거의 사방으로 두고 있는 카페가 있다. 사랑스러운 꽃들이 장식된 하얀 탁자가 수평선처럼 시원하게 중앙에 놓여있고, 편안한 연두색 소파가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야자수 밑, 붉은 화산송이가 깔린 야외테이블에서 노을을 즐기다 보면 지중해 휴양지 섬에 와 있는 착각이 든다. 제주 초당옥수수가 들어간 구수한 달콤한 맛의 '초당옥수수 라떼'와 보랏빛 영롱한 비주얼의 '제주 바당 에이드'는 사우스쇼어의 사랑받는 시그니처 음료이다.



- 서귀포시 이어도로 338
- 0507-1305-1106
- 10:30~20:30
- 반려동물 동반 가능  
베이비 체어 구비
- P












# 바다바라 카페&베이커리

## 시선 아래 색달 해변과 색다른 빵이 드넓게 펼쳐진 곳

#중문색달해변 #정원 #베이커리카페 #바다샌드

질푸른 중문색달해변 절벽 위에는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베이커리 한옥 카페 '바다바라 카페&베이커리'가 있다. 카페에 들어가면 다양하고 푸짐한 빵들이 놓여있고 '제주목장 아이스크림'과 독특한 시그니처 음료를 판매하고 있다. 넓은 야외정원에서 아이들과 강아지도 맘껏 뛰어놀 수 있으며 탁 트인 중문색달해변에서 서핑과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도 한눈에 보인다. 바다바라의 시그니처 디저트 '바다샌드'는 한정 판매하는 개별포장 빵으로 선물하기 좋아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다.



-  서귀포시 중문관광로72번길 29-51
-  0507-1335-8884
-  09:00~23:00
-  반려동물 동반 가능  
베이비 체어 구비
- 







# 더클리프

## 절벽 위, 노을이 환상적인 핫플레이스

#분위기핫플 #선셋파라다이스 #디제잉 #칵테일

중문색달 해변 야자수 너머에는 컬러풀한 칵테일, 섰베드 그리고 DJ 음악이 생동하는 중문의 파라다이스 '더클리프'가 있다. 바다의 아름다움이 최고의 공연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듯, 더클리프의 모든 의자와 테이블은 시야 방해 없이 바다라는 무대를 향해 층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다. 제주 로컬재료를 만든 수제버거와 피자, 커피, 칵테일 등 다양하고 이색적인 메뉴가 남녀노소 모두의 취향을 만족시

킨다. 먹물 튀김옷을 입혀 바삭하게 튀긴 '현무암치킨'과 탱글탱글한 새우를 칠리소스와 나초칩과 함께 곁들여 먹는 이국적인 '쉬림프 칵테일', 다채로운 색감의 음료 '색달비치'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이다. 매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디제잉 공연에 맞춰 바람처럼 살랑살랑 리듬을 타고 있노라면 힙한 클럽에 와있는 듯한 설렘을 준다. 빈백에 누워 바다 위 붉은 노을을 감상해도 좋다. 파티와 문화공연, 페스티벌을 매년 새롭게 기획하는 이곳에서 마음껏 자유로워지길 바란다.



-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54-17
- 0507-1312-8866
- 10:00~01:00  
Food 11:30~22:00
- 반려동물 동반 가능
- P





#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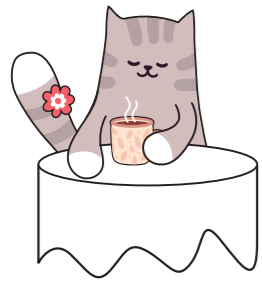




# 중문에서 뭐하지?

달콤한  
휴식편

What are the best things to  
do in Jungmun?



**퍼낸날** 2023년 11월  
**퍼낸곳**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 로 224(중문동) ICCJEJU  
TEL. 064-735-1000  
www.iccjeju.co.kr  
**기획** 백다영, 이석형  
**사진** 한원표  
**디자인·인쇄** 모그크리에이티브솔루션즈





달콤한  
휴식편

# 중문에서 뭐하지?

What are the best things to do in  
Jungmun?

